

홀로 와서 짝이 되는 〈홀리한 내 짝〉

글. 이정우 CBS 기술국 제작기술부 기술감독



크리스천 싱글 남녀의 연애 리얼리티 **홀리한 내 짝**

연출

CBS TV제작국 이형준, 배윤 PD

홀리한내짝

◆ 국내 최초 크리스천 연애 리얼리티 ◆

CBS와 전문가들이
최적의 매칭 제공

“국내 최초”
크리스천 맞선
리얼리티 예능

합숙 NO!
당일 촬영
1:1 만남으로 진행

실제 성혼을
기대하며 진심으로
제작합니다

<홀리한 내짝>의 시작 크리스천 솔로들의 연애는 뭐가 다를까?



요즘 방송가에는 연애와 결혼을 다룬 프로그램이 넘쳐나지만, 현실에서는 혼인율이 감소하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져 국가의 미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연애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끄는 것은 실제로 배우자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더라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높은 비용에 부담을 느껴 많은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다. 특히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적 가치관이 맞는 짝을 찾는 일은 더욱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배우자를 원하는 청년들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CBS에서 건강한 만남의 장을 마련한 <홀리한 내짝>이 탄생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애와 결혼에 진심인 크리스천 솔로 청년 남녀 6명이 하루 동안 여러 미션과 일대일 데이트를 통해 믿음의 동반자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다. 방송 전 티저와 예고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젊은 크리스천들은 물론 부모 세대의 장로, 권사, 집사님들까지 큰 관심을 보였다.



홀리한 내짝 MC(왼쪽부터 송재희, 김원희, 남보라, 홍민기)



홀리한 내짝 making 장면

진행자로는 배우 김원희, 배우 남보라, 그리고 ‘로맨티시스트 애처가’로 알려진 배우 송재희가 함께했다. 여기에 청년사역 30년 경력의 홍민기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대표가 합류해 크리스천 청년들의 진솔한 만남과 감동적인 간증 이야기에 유쾌함과 깊은 공감을 더했다.

<홀리한 내 짝>

관전 포인트 1

치열한 경쟁률 속에서 선정된 출연자들

<홀리한 내 짝>은 출연자 모집 단계에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2024년 5월 말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출연자 모집에 SNS와 입소문을 타고 5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이들 중 선발된 6명의 미혼 크리스천 남녀들이 방송에 등장했다. 기수마다 다양한 출연자들이 각각의 매력으로 시청자들에게 설렘과 감동을 선사했다.



1기 출연자들의 한 장면



2기 출연자들의 한 장면

<홀리한 내 짝>

관전 포인트 2

재미와 감동을 더한 화제의 MC들

MC들은 녹화 현장에서 출연자들의 설레는 데이트와 삶의 이야기에 함께 웃고 때로는 감동의 눈물을 보이며 프로그램의 재미를 높였다. 김원희는 “프로그램이 뻘하고 진부할까 걱정했는데, 크리스천 미혼 청년들의 개성과 진실한 고백이 오히려 신선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보라도 “푹푹한 연애 감성과 크리스천만의 공감대가 어우러진 색다른 매력에 빠졌다.”며 호평했다.



진행자들의 면면도 재미를 더했다. 13남매 중 장녀인 배우 남보라 씨는 최근 결혼 프로포즈 영상으로 이목을 끌었다. 배우 송재희 씨는 어렵게 얻은 딸을 열심히 키우는 좋은 아빠다. 홍민기 목사는 청년사역 30년차답게,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은 경험만 1,000번이 넘는다고 한다.



3기 출연자들의 한 장면



4기 출연자들의 한 장면

<홀리한 내 짝>

관전 포인트 3

기독교 솔로들의

만남은 뭐가 다를까



<홀리한 내 짝> 방송에 출연한 6명의 참가자들은 MZ세대다운 개성과 매력을 뽐냈다.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주저 없이 나누는 대화에 MC 김원희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라 그런 것이냐, 아니면 같은 신앙을 가져서 편해서 그런 거냐”며 놀라워했다. 첫 만남 미션으로 ‘시작기도’가 등장하자 6명의 남녀 출연자들이 보여준 능숙한 기도는 일반 연애 프로그램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드러냈다.

◆ <홀리한 내 짝> 규칙! ◆

홀리한 내 짝에는 규칙이 존재한다.

1. 본격적인 자기소개 전까지 직업과 나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2. 최종 선택 전까지 개인적인 연락처 교환을 금지합니다.
3. 서로를 ‘ㅇㅇ님’으로 불러주세요.
4.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해 주세요.

이런 규칙 아래 자기소개 전에 서로를 궁금해하고, 자기소개 후에 호감도가 변화하는 모습이 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1:1 데이트와 여러 미션을 통해 조금씩 러브라인이 만들어지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출연자들처럼 상황에 몰입하게 됐다.

이 프로그램을 아직 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CBS 앱 ‘만남’나 C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해 보기를 권한다. 기수마다 특색 있는 출연자들(<1기 정윤, 하민, 영민, 민지, 수민, 채린>, <2기 종수, 예랑, 준영, 윤정, 지은, 은아>, <3기 승훈, 성혁, 현석, 찬주, 정원, 유리>, <4기 은총, 시연, 인성, 소울, 주은, 한결>)이 보여주는 진솔한 모습과 설렘, 그리고 커플이 탄생하는 순간의 짜릿함은 시청자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홀리한 내 짝> 시즌 1은 2024년 10월 31일 첫 방송을 시작해 2025년 1월 16일 12회로 마무리되었다. 시즌 2 소식이 기다려진다. 아직 시청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최종 커플에 대한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다. 📺



미션을 전달하는 ‘홀짝이’